

# 01

##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 및 협력방안 -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의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

윤희철(Yoon, Hee Cheol)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도시 · 지역개발학 박사)

yhcheol@naver.com

## 1. 들어가며

최근 우리 사회는 기후변화, 청년실업, 사회적 양극화, 인구 고령화 등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과거의 개발시대에서 벗어나 저성장 시대에 진입하였고, 개발의 패러다임도 고성장의 틀에서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관점으로 변화하고 있다. 과거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다. 국제사회가 UN을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를 채택하고 17개 목표와 이와 관련된 국제협약 등을 제시한 것도 전 세계가 직면한 인류의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출발한 것이다. 여기에 작년 문재인 정부에서 제시한 혁신적 포용성장도 이러한 측면에서 제기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대학은 지역사회와의 상호지원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물리적 거리가 소멸되고 있는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지방이란 개념은 중앙과 반대되는 ‘저개발 또는 변방’의 대명사가 아니라, 자율과 창의 그리고 우리의 고유한 유산들이 잘 보존된 특색 있는 지역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 의식개혁의 주요 주체로써 대학이 역할을 할 여지가 더욱 커지고 있으며, 그 중심 주체로써 자리매김해야 한다<sup>1)</sup>.

지역사회와 대학과의 협력이 지역문제 해결과 주민들의 복리향상에 기여한다는 논의가 빈번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대학과 지역사회 간의 협력을 증진하는 연구는 지금까지 많지 않았다.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 대학자원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고, 대학 캠퍼스의 개방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나타난 것도 1990년대 이후였다<sup>2)</sup>. 이후 대학자원을 활용한 지역의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대학생 사회봉사 등의 활동이 증가하였다<sup>3)</sup>.

대학이 가진 자원의 활용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있었지만, 여러 한계점이 있었다. 평생교육, 대학생 사회봉사, 대학 시설 개방에 관한 연구는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진척이 있었지만, 대학이 가진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을 도모하는 측면에서는 다소 부족한 한계가 있었다<sup>4)5)</sup>.

따라서 이 글은 지역대학이 가진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사회와의 연계방안을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모색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을 해결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박노동(2012), 대전시와 대학의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발전연구원, p. 28.

2) 여혜진·김광중(2008), 대학 지역사회 협력적 계획의 한국적 여건: 서울소재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제43권 제5호, pp. 91-106.

3) 박태영·김숙경·오주·이경은·장덕희(2015), 자원봉사론, 공동체, pp. 393-395.

4) 김태현·이태희·윤기학(2014), 서울의 대학·지역사회 협력실태와 증진방안, 서울연구원, pp. 5-6.

5) NGO와 대학의 협력에 대해 국제개발 측면에서의 연구는 다수 있지만, 이 글은 주로 대학이 소재한 지역사회와의 협력방안 중에서 시민사회단체와의 연계 및 협력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기에 제외하였다.

## 2. 지역사회에 대한 대학의 역할

### 1) 로컬 거버넌스의 주체로서의 대학

거버넌스에 대한 용어는 아직 우리 언어로 적합한 용어를 찾지 못하고 있다. 거버넌스, 국정관리, 신공공관리, 협력적 통치, 네트워크적 관리, 망치(網治), 협치, 공치(共治) 등 다양하다. 하지만 본래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에 모두 부족하기에 ‘거버넌스’라는 용어가 주로 쓰이고 있다. 거버넌스의 의미로 볼 때 가장 적합한 번역은 ‘함께 다스림’ 또는 ‘더불어 다스림’이다<sup>6)</sup>.

거버넌스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정책을 결정하는데 과거와 같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여 결정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전체 집단이나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결정 및 문제의 해결을 하는 것이다<sup>7)</sup>. Stoker(1999)는 거버넌스를 ‘자기조직화된 조직들 간의 네트워크’로 정의하면서 거버넌스의 특징을 설명한다. 첫째, 공공·민간·자원부문의 행위자들인 네트워크 구성원들 간의 경계는 모호해지고 상호의존성이 높아진다. 둘째, 네트워크 구성원들은 자원을 교환하고 공유된 목적을 협의하기 위하여 계속 상호작용을 한다. 셋째, 네트워크 구성원들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신뢰와 게임규칙에 근거하여 상호작용을 한다. 넷째, 네트워크 구성원들은 높은 자율성을 누린다. 따라서 네트워크 관점에서 거버넌스는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통치하기 위한 공공·민간·제3부문간의 네트워크 구조라고 정의한다.

협치의 거버넌스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자율적으로 호혜적인 상호의존성에 기반하여 협력하도록 하는 제도 및 조종형태이다. 사회문화적인 시각에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자기조직적인 네트워크가 구성 및 운영되는 것과 그 실현을 위한 사회기반의 개선에 초점을 둔다. 협의적 거버넌스는 정부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의미에서 “정부 없는 거버넌스(governance without government)의 형태에 가깝다. 광의의 거버넌스는 정부중심의 공적 조직과 사적 조직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나타나는 국가(정부), 시민사회 및 시장 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새로운 협력형태(Stoker, 1998)라고 규정한다. 기존의 계서제적 정부 그 자체를 배제하지 않으면서 국가 권위에 기초한 통치로서 정부기능을 부인하는 대신 사회의 주요 행위자로서 시장에서 민간기업과 이에 대칭하는 행위자로서 정부, 이들 양자간에 위치한 시민과 NGO간의 수평적이고 상호협력적인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정부와 함께 하는 거버넌스(governance with government)라고 할 수 있다<sup>8)</sup>.

따라서 로컬 거버넌스는 지방통치과정에서 더 이상 단일하고 동질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정부의 관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서로 상이하지만, 상호의존적인 수준에서 활동하는 공공기관·준공공기관·민간조직·자원기관의 결합을 강조한다. 이 조직경계를 침투하는 ‘여러 기관의 협동’, 파

6) 최병대(2002), 거버넌스와 시민참여, 거버넌스의 이해, pp. 246-252.

7) 김석준(2002), 거버넌스의 이해, 서울: 대영출판사, pp. 245-280.

8) 문병기, 로컬 거버넌스 관련 제 이론적 접근, “로컬 거버넌스”, (서울: 법문사, 2003), pp. 27-35.

트너십, 정책네트워크와 깊은 관련을 맺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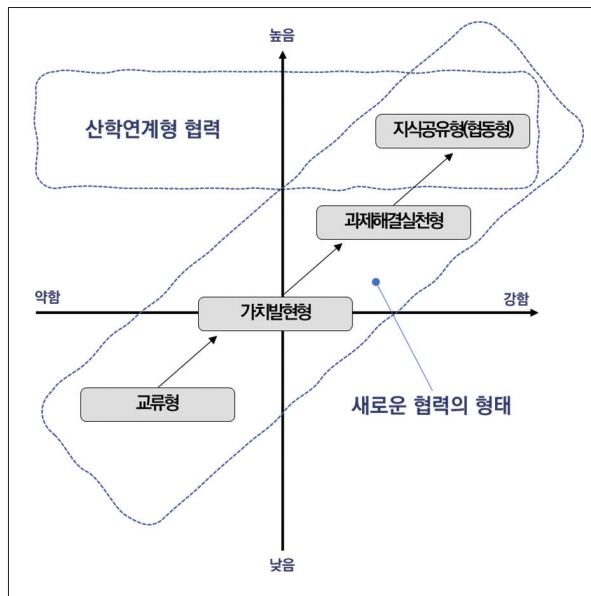
따라서 대학은 로컬 거버넌스의 일원이자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자격과 의무가 있다. 이는 지역사회 문제해결, 지역민을 위한 삶의 질 향상 등 다양한 사회 목표에 부합한 활동을 하면서 상호 발전과 이를 위한 협력의 장을 열어야 함을 의미한다.

## 2) 대학과 지역사회의 주요 파트너십

이러한 대학과 지역사회의 파트너십의 주요 참여자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주민, 지역기업, 종교기관, 초중등학교 관련된 커뮤니티 등이 있다. 대학은 크게 대학의 교수, 학생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지역 정치인 등이 있고, 시민사회단체, 기업 등이 대학과의 지역사회 협력관계에 참여가 가능하다<sup>9)</sup>.

최근 들어 대학의 역할이 컴퍼스 내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논의가 계속되면서,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산학연계형 협력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고, 여러 성과를 내고 있다. 물론 이전에도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통해 상호 소통과 협력을 도모했던 다양한 사례들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리빙랩과 같은 방법을 통해 대학의 지식과 지역의 실천을 한데 묶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상호 상생과 발전의 기회로 찾아가는 새로운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그림 3] 대학과 지역연계의 유형



출처 : 中塚雅也·小田切徳美(2016), 大学地域連携の実態と課題, 農村計画学会誌 Vol. 35 No. 1, p. 7.

9) 김태현·이태희·윤기학(2014), 서울의 대학-지역사회 협력실태와 증진방안, 서울연구원, pp. 20-21.

대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이러한 다양한 효과는 경제적 측면과 사회·문화적 측면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대학이 지닌 인적자원 공급, 교육기회 공급, 사회적서비스, 지역문제의 진단 등에서 볼 수 있다<sup>10)</sup>.

**| 표 2 | 대학과 지역사회의 파트너십 및 기여 가능 자산**

구분	대학	지역사회	공공부문	이해관계자
파트너십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대상 및 경험적 연구 기회</li> <li>• 지역사회의 친밀감 형성 및 주변 환경 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자원을 이용한 지역문제 해결</li> <li>• 지역민들의 복리 증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문제 해결</li> <li>• 지역민들의 복리향상</li> <li>• 지역발전정책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적 목적 달성</li> <li>• 소속단체의 이익 향상</li> <li>• 협력을 통한 이익 공유</li> </ul>
기여 가능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간 및 시설 지원</li> <li>• 지식 및 인적 지원</li> <li>• 경제적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의 자산 제공</li> <li>• 대학의 교육서비스의 수요자</li> <li>• 정책적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 및 정치적 권한</li> <li>• 재정적 자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적 지원</li> <li>• 인적 지원</li> <li>• 지적 지원</li> </ul>

출처 : 김태현·이태하·윤기학(2014), 서울의 대학·지역사회 협력실태와 증진방안, 서울연구원, p. 21.의 내용을 토대로 연구자 수정

### ■ 인적자원의 양성 · 공급

인적자원이란 특정한 사회구성원의 지식, 기능 기타 모든 능력을 총체적으로 지칭한다. 이러한 인적자원의 공급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지역사회에 영향을 준다. 첫째, 양질의 노동력을 공급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을 성장시키는 데 공헌하며, 기술의 발전·보급으로 지역산업의 기반강화에 기여한다.

둘째, 양적 기여뿐만 아니라 교육받은 인력이 지역주민의 사회·정치 의식구조를 변화시켜 공동체 의식과 발전지향적 의식을 향상시키고, 사회규범을 준수케 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셋째, 대학이 양성하는 고급인력은 이러한 인력에 대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사회충원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교육의 사회적 기능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기능으로서 교육이 서로 다른 사회적 지위에 각 개인을 적절히 분배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대학은 지역사회의 고급인력에 대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지역성장과 구조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한편 인적자원의 양성과정에서도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간의 활발한 상호교류성이라는 지역성장의 동인을 확보할 수도 있다. 교육수준이 높고 젊은 청장년층의 지역유입은 지역의 전반적인 활기와 변화를 만들고 급변하는 상황에 유연히 대응하는 기업이 정신을 견인할 수 있다.

10) 박노동(2012), 대전시와 대학의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발전연구원, pp. 24-27.의 내용을 중심으로 필자 일부 수정

## ■ 지역경제의 긍정적 효과 발생

[표 3] 대학과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효과

구분	연구	교육	사회봉사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리 탐구</li> <li>• 학문 창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식 전달</li> <li>• 인격 교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요구에 부응</li> <li>• 실생활 중심의 교육 제공</li> </ul>
Goldste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학문 창출</li> <li>• 기술혁신</li> <li>• 지식인프라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재 공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 기관 컨설팅</li> <li>• 자본 투자</li> <li>• 지역 내 리더십 발휘</li> </ul>
Godda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클러스터 형성, 발전</li> <li>• 지역으로부터 연구비 지원</li> <li>• 지식 네트워크 활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학생 유입</li> <li>• 인재공급</li> <li>• 평생학습, 성인교육 제공</li> <li>• 직업적 교육과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적 이슈 대응</li> <li>• 학교의 물적, 인적 인프라 제공</li> </ul>
한국교육개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산업과 관계된 사업 참여</li> <li>• 지역산업에 필요한 연구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습형 교육과정 제공</li> <li>•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력 양성 사업 참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봉사 인력제공</li> <li>• 지역산업 기술지도</li> <li>• 지역사회 프로그램 지원</li> </ul>

출처 : 양승실·이정민(2005), 한국 대학의 지역 네트워크 강화 전략 탐색, 교육연구 18, pp. 163-193.

대학은 지역경제적 측면에서 지역주민의 고용과 교직원 및 학생의 소비활동을 유발한다. 직접 소득효과는 지역주민의 고용이나, 대학의 지역입지에 따른 막대한 교육비의 지역 외로의 유출방지에서 나타난다. 간접 소득효과로는 대학교 직원과 학생들이 지역의 새로운 주민이 되어 이들의 소비지출과정이나,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가 새로 지역에 투자하는 데서 나타난다. 특히 대학 주변 지역에서는 이러한 소비지출을 대상으로 새로운 사업기회가 발생하기도 한다. 유도 소득효과는 앞의 직접소득과 간접소득이 지역주민들의 소비과정에서 다시 또 다른 소득이 창출되는 것이다.

## ■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

대학은 대학이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지역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각종 지식과 정보·기술을 제공하거나, 대학의 여러 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있다. 대학이 지니고 있는 사회적 서비스 기능을 살펴보면, 첫째, 대학은 축적된 전문성과 기술·정보를 산·학·연이나 지역의 각종 위원회나 심의회 참여, 공개강좌 등을 통하여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면, 관련 기업이 찾아오고 그 기업들에서 창출된 이익이 다시 지역과 대학으로 흘러들어오는 순환구조를 찾아볼 수 있다.

둘째, 지역의 문화·정보센터로서의 지역사회에 대한 서비스 기능을 들 수 있다. 각종 전시회·연주회·발표회의 지역순회 개최, 각종 공개강좌, 도서관 개방, 지역 정보관리·제공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문화·정보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다. 셋째, 대학생들의 사회봉사활동 지역개발에 대한 기여가 있다. 대학생들의 봉사활동으로는 가장 대표적인 농촌봉사활동 외에도 고아원·양로원 등의 복지시설에 대한 봉사, 야간학교 교사 등의 봉사활동이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에 기여하고 있고, 최근에는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직간접적인 참여의 기회도 증가하고 있다.

#### ■ 평생교육기회의 제공

대학은 지역주민에게 대학진학기회를 제공함을 물론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수행하고 있다. 지역을 개발할 때 성취되어야 할 가치 중에서 핵심적인 가치는 삶의 질과 삶의 기회를 높이는 것과 자기완성·자아실현에 관한 것들인데 이 중에서도 궁극적인 것은 모든 개인의 자기완성이다.

이러한 가치실현에는 교육, 특히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대학교육이 중요하다. 따라서 대학교육은 지역의 핵심적인 기초수요의 하나이다. 지역사회가 아무리 발전된 상태라 하더라도 대학교육은 인간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수요의 하나이며 삶의 질을 구성한다. 지역의 핵심적인 기초수요인 대학교육의 기회제공이 지역별로 균등하지 못하면 인구이동을 촉진시켜 지역간 격차를 노출시킬 수 있다. 보다 나은 교육기회를 얻기 위한 인적자원이 이동함으로써 집중된 지역이든 이출 지역이든 심각한 여러가지 문제에 시달리게 된다.

각 지역에서 고등교육기회가 어느 정도 균등화되면 인적자원의 교육수준 및 기능정도의 지역간 상이성이 어느 정도 시정되고, 따라서 균등화된 교육수준은 소득 면에서도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등교육을 받은 인력이 많다는 사실만으로도 타 지역과의 문화적 격차를 줄이게 하는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최근의 달라진 교육환경에서는 대학이 열린 대학으로서 그 지역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의 장이 되어야 을 요구받고 있다. 대학을 필요로 하고 있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시설을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 ■ 지역문제의 진단·처방

최근에는 사회혁신의 측면에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대학의 기능이 부각되고 있다. 대학은 지역의 과제, 문제 등을 대학의 교육·연구·봉사 등에 반영시켜 교육과 지역의 가치를 형성하고, 제고시켜 궁극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대학교육은 단순한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이라는 고전적 통념을 넘어서서 사회 그 자체의 존속과

개발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야 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따라서 대학은 단순히 인력을 양성·배출하는데 머물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갈 수 있는 기능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그리고 사회변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 변화시킬 수 있는 사회혁신기능을 수행하여 대학을 중심으로 하나의 공동체적 통합을 이룰 수 있다. 또한, 대학은 지역의 문제와 과제를 대학의 연구과제로 채택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 지역이 요구하는 지식과 정보를 저장하고 공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3.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력사례

대학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한 수많은 사례들이 있다. 이 글에서는 일본, 미국, 국내의 사례를 일부 소개하고, 주요 특징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대학이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지역사회와 공존을 선택하고 그 영향을 구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지역의 변화에 기여하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 1) 일본 코베 대학과 지역사회 협력 사례

[그림 4] 코베대학 지역연휴추진실 홈페이지



출처 : 코베대학 홈페이지 <http://www.kobe-u.ac.jp/>

코베대학은 코베고등상업학교와 코베상업대학의 전통을 계승하는 일본 관서지방의 명문 국립 대학의 하나이다. 특히 상업대학의 전통을 이고 있는 경제학·경영학 분야에서 강점을 두고 있다. 코베대학은 이런 도시 분위기 속에서, 인접한 교토·오사카의 대학들과의 교류하에서 활발한 교육·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 대학은 지역연휴<sup>11)</sup>추진실(地域連携推進室)을 두고,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이며, 매년 보고서를 발행해 주요 활동을 공유하고 있다. 보고서를 토대로 살펴보면, 경영과 경제의 경우,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협력 및 연계를 진행 중에 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경영학연구과의 경우, 효고현 토요카시의 지역활성화를 위해 학부생들과 함께 산관학연휴사업을 진행하여, 지역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제학연구과는 거의 10여년 동안 진행한 다카정(多可町)

11) 일본어 연휴(連携)는 팀워크, 협동 등을 의미하며, 원어의 의미를 살려 연휴로 표기함



사업이 거의 완료됨에 따라, 2019년에 히메지시(姫路市)에 대한 향후 사업 진행을 위한 조사작업을 시행하여, 지역창업사업과의 연계해 진행 중에 있다<sup>12)</sup>.

이외에도 코베대학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위해 각 학부별로 지역사회연계활동을 수행 중에 있다. 문학부의 지역센터 활동을 살펴보면, 자치체 및 지역주민과 연휴한 새로운 자치체사 편찬과 지역문화박물관 사업을 진행 중이고, 역사자료의 보전사업, 한신·아와지 대지진 자료의 보존 활용 사업, 역사문화유산 활용기구의 구축 지원과 인재육성사업을 진행 중이다. 의학부의 경우는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이 살기 쉬운 지역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고위험 아동의 부모 지원 프로젝트, 중증 장애를 갖는 어린이의 의료지원 서비스, 가벼운 장애아, 사회적 적응이 어려운 어린이들에 대한 지원 프로젝트 등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활동에 대해 교베대학은 지역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연구와 함께 이를 바탕으로 실천활동에 교원과 학생들이 지원하여 대학이 가진 지식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 2) 미국 미시간 대학의 대학과 커뮤니티 파트너십 사례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교는 UCP(University-Community Partnerships)를 운영 중이다. UCP는 지역 사회와 대학의 요구에 민감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대학-지역 파트너십에 대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UCP는 모든 파트너를 위한 상호 혜택, 지역 사회 역량 강화, 연구 네트워크 내에서의 장기적인 관계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동시에 발전적이고, 역동적이며 체계적인 프레임워크를 구성하여 대학과 커뮤니티의 파트너십을 제도화할 뿐만 아니라 대학과 커뮤니티 간의 여러 수준의 연결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sup>13)</sup>.

이 프로젝트는 학부생들과 교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성하여, 대학과 커뮤니티 참여의 개념을 소개하고, 학생들이 지역사회 기반의 연구와 참여 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돕는다. 여기에서 활용되고 축적된 데이터는 신진 학자들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된다.

12) 神戸大学地域連携推進室(2020), 平成30年度地域連携活動報告書.

13) 미국 미시간대학 홈페이지, <http://ucp.msu.edu/>

그림 5 |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의 UCP 홈페이지



출처 : 미시간주립대학, <http://ucp.msu.edu/>

이 플랫폼은 5개의 모듈로 이뤄져 효과적으로 작업을 하면서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소통을 위한 기술 등을 배우는 문제 해결 방식에 중점을 둔다.

그리고 지역사회 참여 대학원 인증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교원의 지도 경험과 멘토링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여기에 참여한 학생들은 일종의 인증을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 3) 광주 지역의 사례

#### 1) 수업의 연계 : 전남대 대학과 사회봉사

2016년부터 전남대 조경학과에서는 ‘대학과 사회봉사’라는 과목을 개설했다. 학부생들이 지역의 NGO 활동에 참여해 지역사회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들이 살아가는 공간에 대한 참여를 통한 변화를 느끼고 체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수업에는 사)푸른길, 한새봉두레,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생명의숲,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같은 NGO가 참여하고, 매 학기 개설하여 전남대 학생들의 참여 기회를 열고 있다.

수업의 진행 방식은 단체와 기구가 참여하는 설명회를 한 차례 개최한 후, 연중 진행되는 각종 시민참여 행사에 학생들이 자원봉사자, 참여자 등의 참여해 실제 활동하도록 한다. 수업 참여의 결과는 학점이 아닌, 패스로 결정되며, 일정 수준의 참여가 진행된다면, 그 결과를 통해 결정된다.

이를 통해 NGO는 청년들의 다양한 참여 기회를 통해 활동 측면에서 협조를 받을 수 있고, 학부생들은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장을 직접 체험하는 소중한 경험을 체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 2) 지역사회 활동 참여 :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대학생 지속가능발전 논문대회

2015년부터 대학생들의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고민과 해결과정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대학생 지속가능발전 논문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 행사는 대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청년들의 문제를 고민해 보면서,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해 지적인 노력의 성과물을 논문의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다.

매해 평균 15편의 논문이 제출되고, 이 논문들은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작성한다. 대부분의 주제가 우리 사회의 문제를 대상으로 나름의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학부생들의 논문이기에 완성도에서 한계는 있지만, 지역사회의 공간적인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고민하고 해결하는 새로운 시각도 엿보인다.

|그림 6 | 지속가능발전 논문 경연대회 사례(2018년)



출처 :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페이지, <http://www.greengj21.or.kr>

지난해는 지속가능발전과 광주 5차의제의 17개 의제를 주제로 논문을 작성하도록 했으며, 지난 9월 7일부터 10월 10일까지 한 달 동안 연관된 주제를 학생들이 직접 선택하고 주제와 맞춰 연구·작성한 후 논문을 제출하도록 했다.

그 결과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예비 초등교사의 인식 제고 방안’을 주제로 논문을 작성한 김소정·정철운(광주교육대) 팀이 대상을 수상했다. ‘도시 양봉을 통한 광주광역시 내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연구’를 주제로 한 황소미·박선진 팀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외에도 대학가 주차공간, 광주천 외래침입식물, 미세먼지의 인식실태 등을 주제로 한 논문도 호평을 받았다<sup>14)</sup>.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학생들이 지역사회 문제에 참여하고 문제해결 방안을 고민하는 연습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고, 이는 졸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회참여의 방법을 생각하고 실제 실행하게 하는 중요한 마중물이라는 사실이다.

14) 광주일보, 지속가능발전 대학생 논문 경연대회...5개팀 선정, 2018.11.7.

## 4. 시민사회단체와 대학의 협력방안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그동안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 환경과 개발의 이슈, 사회적 양극화, 청년 실업, 인구 고령화 등 다양한 문제에서 도시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실제 정책의 반영을 위해 노력한다. 동시에 실제 시민들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변화를 담보할 수 있는 실천적 노력도 아끼지 않는다.

대학은 경영과 경제에 관한 다양한 비즈니스 분야의 우수한 경영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내 최고의 지적 능력을 겸비한 교원 자원, 이를 통해 학습의 장을 열어가는 학생들이 존재하는 인적자원과 함께, 교육 공간을 구비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교육을 위한 다양한 자원과 함께 지식 네트워크도 갖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대학의 연계는 요즘 부각되는 사회혁신에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주체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양 측면의 역량과 자원을 어떻게 공유하고 사용할 것인가는 양쪽 모두의 힘을 모아 상호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대학은 이미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이 사회의 변화에 따라 향상될 필요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큰 변화없이 기존의 방식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현재 진행 중인 내용을 보다 내실있고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면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대학의 협력과 공동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 상호 이해를 통한 소통과 학습의 장 마련

지역내 시민사회단체는 대학이 현재 진행하는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교육에 특화된 대학의 성격상 현재의 정보 공유와 소통의 구조도 주로 교직원과 학생을 위해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실체는 대학 홈페이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용자가 주로 교직원과 학생이고, 주 분야가 교육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구성되어 있다.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어떠한 고리도 확인이 어렵다. 언론에서 주로 거론되는 내용도 교원 개인의 사회적 활동이나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혜택, 즉 장학금 수여나 연수 프로그램 등을 소개할 뿐이다. 지역사회와 연계된 어떠한 활동도 대학 차원에서 보이지 않는다<sup>15)</sup>. 따라서 대학이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해야한다면, 먼저 소통을 위한 플랫폼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한 조직적 준비도 필요할 것이다.

동시에 파트너십을 갖기 위한 지역내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광주지역 내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가 있다.

15) 이 내용은 네이버, 다음 등의 주요 포털 검색사이트를 통해 확인한 사실로써 최근 몇 년간 대학 차원에서 지역사회와의 소통 또는 공유 등의 활동은 없었으며, 주로 학술교류 행사가 대학에서 가진 교육 네트워크를 통해 진행되었음

공식적으로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 등록된 단체가 6백여 개로 추산되며, 그 분야나 범위도 복지, 경제, 사회, 환경 등 다양하다. 최근에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분야도 대거 등장하고 있고, 기존의 시민사회단체의 틀에서 벗어나 주민 동아리 조직, 주민모임 등의 다양한 마을공동체 활동도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대학이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진행하고자 한다면, 모든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을 추구하기보다 대학의 방향과 관점에 부합한 기관, 단체, 모임 등을 선택하는 전략적 접근도 중요하다. 그리고 전반적인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역할과 주요 활동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상호 협력과 이를 통한 발전에 대한 방향을 잡는 것이 요구된다.

이미 대학 스스로 자체적인 세미나, 토론회 등 자체적인 학술행사를 진행하는 경험적 토대를 갖고 있고, 이해당사자와의 간담회 등 의견수렴과 소통의 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방안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 ■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참여

국의 사례에서 봤듯이 대학은 수세기 동안 인류가 축적해 왔던 지식이라는 거대한 자산을 갖고 있다. 대학 역시 가장 중요한 자산은 지식의 보고라는 것이고, 이를 지역사회에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지식을 실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하면서 공간적 범위로 대학이 소재한 지역과 마을공동체를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미 교원들을 중심으로 전문가 참여 방안은 광주시, 자치구 등의 법정 위원회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하지만 전체 경영대 교원으로 보면, 이는 일부에 불과하다<sup>16)</sup>. 따라서 기존의 법정위원회 참여에서 지역문제 해결로의 참여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표 4 |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협력 방안(예시)**

구분	주요내용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개강좌</li> <li>• 사회인 학교수용</li> <li>• 시설 개방</li> </ul>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과 공동연구</li> <li>• 지역문제 연구</li> </ul>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정보의 데이터 뱅크</li> <li>• 학습상담</li> </ul>

16) 2017년 광주시 정보공개요청자료에 따르면, 경영학부 3명, 경제학부 3명이 광주광역시 법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음.

구분	주요내용
사업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업기획 지원</li> <li>• 지역네트워크 지원</li> </ul>

출처 : 박노동(2012), 대전시와 대학의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발전연구원, p. 23.

앞서 살펴본, 일본 코베 대학의 사례처럼, 학부 차원에서 교원과 학생들이 지역재생, 개발 등에서 다년에 걸친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형태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각종 학술활동에서도 광주내 문제 해결을 실증연구 방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한 학생들의 참여에 방식에 대한 연습은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활동, 교육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 물론 문제해결을 위한 참여의 기회와 방식은 다양하지만, 현재 열려있는 내용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는 향후 논의를 거쳐 시도해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해 나타날 시행착오는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를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방안

대학이 가진 최고의 강점을 살린 상호 협력의 방안은 대학이 가진 지적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이다. 이미 우리 사회는 전문화된 사회이면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요구되는 고도화 사회이다. 하지만 현장의 문제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단순히 개념적 이해로 접근했을 때는 현장과 실체가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현장 참여가 필요하다. 이 경우 보통 현장의 축적된 데이터를 대학 전문가, 학생들이 참여해 연구를 진행한다. 그런데 첫 출발부터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상호 이해의 부족에서 발생하는데, 시민사회단체는 연구기관과 달리 문제에 대한 전문적 접근보다는 현안에 대한 신속한 접근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시민사회단체 입장에서는 연구기관이나 대학과 달리 연구방법론이나 현장에서의 데이터 축적에 다소 소홀히 하는 면이 있다.

또한, 연구방법론을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도 시민사회가 갖는 결점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활동과 이를 통한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활동의 시작부터 긴밀한 협조관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래서 데이터 축적을 위해 설계단계부터 참여할 필요가 있다. 실천적 활동에 시민사회단체가 강점을 갖는다면, 개념과 이론적 측면에서 대학이 갖는 강점을 살리면서 상호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문제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조사를 위한 초기 단계부터 함께 고민해서 설문을 만들고,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 보완이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등의 현장 연구를 함께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시민사회단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대학의 연구자와 학생들은 이론적 내용을 실제 적용하고 검증하는 작업을 현장에서 진행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 ■ 지역사회 협력 플랫폼의 구성 필요

지금도 대학과 지역사회를 연계하기 위한 협력 플랫폼이 존재한다. 지역의 대학교에도 링크 플러스 사업단이 존재하고, 민관산학을 연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를 대학 차원에서 활용하고 공동 협력을 강구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수 있다. 단과대학 차원에서 별도의 플랫폼을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에 소재한 지역개발연구소와 경영연구소를 플랫폼의 한 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미 두 연구소는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다양한 활동과 실험 등을 진행 중이고, 이를 대학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교직원과 학생들을 위한 대학의 홈페이지, SNS도 일부 변경해, 새로운 지역사회와의 소통의 채널을 열 필요가 있다. 물론 아직까지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와 연대와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시기상조일 수도 있지만, 지역사회 연계형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온라인 채널을 열 필요도 있다.

## 5. 마치며

지금까지 시민사회단체와 대학과의 협력의 장을 여는 이유도 중요성, 그리고 이와 관련된 다소 피상적이지만 필요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지역사회의 문제가 갈수록 복잡다기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대처하는 지역사회의 움직임은 아직까지 기민한 대처를 잘 진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발생한 문제의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 조직과 단체가 지방정부와 기관들과 연계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도 한계가 존재한다. 게다가 예전과 달리 시민사회단체가 전문성을 갖고 현재의 문제에 대응하기에 한계도 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사회문제가 발생하면, 이에 대응해 법제도를 정비하고 정책을 만들도록 제안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제정된 법률의 문제를 파악하고,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진단해야 하며, 동시에 정책의 집행 주체인 지방정부의 활동까지 감시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가 이 모든 것을 하기에 이 사회가 너무나 세분화되어 있는 점도 문제의 한 축이다.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지역의 대학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한다면,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과 이를 통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동시에 대학도 연구역량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것을 검증하면서 여기에 참여하는 교원과 학생들의 능력도 배가하는 다양한 상생의 장이 펼쳐질 것이다.

학문의 장으로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앞으로도 대학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다. 대학이 새로운 변화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교류가 진행되어야 한다.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의 역량을 지역의 시민사회단

체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해결한다면, 앞으로도 대학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한 지역의 발전은 지역쇠퇴, 지방소멸의 위기를 지방대학이 해소하는 중대한 열쇠가 될 것이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 대학과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이 쉽게 잘 펼쳐질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 우리는 이 경험이 없다. 진행과정에서 여러가지 시행착오가 일어날 것이다. 처음에는 상호 이해가 부족하기에 당연히 이러한 실패는 이어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대학과 시민사회단체의 상호 연대와 협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간다면, 대학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새로운 활동으로 전개되는 긍정적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 | 참고문헌 |

- 김태현 · 이태희 · 윤기학(2014), 서울의 대학·지역사회 협력실태와 증진방안, 서울연구원.
- 김석준 외(2002), 거버넌스의 이해, 서울: 대영출판사.
- 박노동(2012), 대전시와 대학의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발전연구원.
- 박태영 · 김숙경 · 오주 · 이경은 · 장덕희(2015), 자원봉사론, 공동체.
- 문병기(2003), 로컬 거버넌스 관련 제 이론적 접근, 로컬 거버넌스, 서울: 법문사.
- 민철구 · 박기범 · 정기철 · 조현대(2011), 지역혁신을 위한 지역대학 역할정립과 활성화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여혜진 · 김광중(2008), 대학 · 지역사회 협력적 계획의 한국적 여건: 서울소재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제43권 제5호, pp. 91-106.
- 최병대(2002), 거버넌스와 시민참여, 거버넌스의 이해.
- 国立大学協会(2018), 産学連携·地域連携, 国立大学連携·協同による取組事例集.
- 中塚雅也 · 小田切徳美(2016), 大学地域連携の実態と課題, 農村計画学会誌 Vol. 35 No. 1, pp. 6-11.
- 神戸大学地域連携推進室(2020), 平城30年度地域連携活動報告書.
-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페이지, <http://www.greengj21.or.kr>
- 미국 미시간대학 홈페이지, <http://ucp.msu.edu>
- 코베대학 홈페이지 <http://www.kobe-u.ac.jp>